

http://dx.doi.org/10.17703/JCCT.2019.5.2.163

JCCT 2019-5-20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통합예술치료의 효과성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Integrated Art Therapy to Improve the Self-Esteem of the Children who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유선숙*, 배성찬**

Sun-Sook Yoo*, Seong-Chan Bae**

요약 본 연구에서는 통합예술치료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성을 검증해 보는 것이며, 효과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양적연구로는 비모수 통계를 사용하여 자아존중감(Self-esteem)의 차이 검증을 하였다. 질적연구로는 동적가족화, 문장완성검사, 프로그램 보고서, 피드백 일지, 연구자와 보조치료사의 관찰 일지를 이용하여 내면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내 I시에 소재한 I초등학교 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후 총체적 자아존중감·사회적 자아존중감·가정적 자아존중감·학교적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예술치료는 자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구체적 인식을 증진시켜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적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또래관계와 대인 관계 개선을 위해 통합예술치료를 향후 학교나 기관에서 실시한다면 사회적 비용절감과 거리감을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아동, 가정폭력, 자아존중감, 통합예술치료, 또래관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tegrated art therapy on the self-esteem of children who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re is an effect, we used the nonparametric statistic as a quantitative study to verify the difference of self-esteem. In qualitative research, I used the dynamic familyization, sentence completion test, program report, feedback journal, and observation log from researcher and assistant therapist so as to get the deep understanding of their inner world. This study conducted a trauma test for 49 children in grades 4-6 from one elementary school in a city of Jeollabukdo Province. As a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total self-esteem including their social life, family life, and school life after the program was implemented. Also, integrated art therapy promoted general perception and specific perception of self, which affected total self-esteem, social self-esteem, family self-esteem, and school self-esteem. So, it improves the self-esteem of 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In order to improve peer relations and interpersonal relations, if integrated art therapy is carried out in schools or institutions in the future, it will be possible to reduce social cost and distance.

Key words : Child, Domestic Violence, Self-esteem, Integrated Art Therapy, Peer relationship

*정회원 군장대학교 사회복지계열(제1저자)

**정회원,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참여자)

접수일: 2019년 2월 18일, 수정완료일: 2019년 3월 16일

게재확정일: 2019년 4월 9일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 한 것임

Received: February 18, 2019 / Revised: March 16, 2019

Accepted: April 09, 2019

*Corresponding Author: bae007@hanil.ac.kr

Dept. of Social Welfare, Hanil Univ, Korea

I.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므로 개인의 가정사로 치부되어 정당성이 쉽게 인정되어 왔으며, 대체로, 여성과 아동이 학대의 위협에 노출되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안에서 직접적, 간접적 학대에 노출된 아동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정서 및 행동적응에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비행, 공격성 등의 행동적 적응과 불안, 우울, 철회 등의 정서적 적응이 어렵다 [1]. 또한 옷차림, 유행어와 같은 또래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말더듬, 목소리 이상, 과민반응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개별 심리상담은 비용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처치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이 많다.

따라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대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통합예술치료가 필요하다고 본다. 통합예술치료는 집단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의 관계경험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기본적인 신뢰형성과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에 도움을 주고 학교, 가정에서의 적응력을 높여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통합예술치료를 통해 기관, 방과 후 학교에서의 문제 행동에 대해 예방적 치료로서의 적용가능성을 알아보고 상담 장면에서의 치료적 전략과 개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동적가족화를 이용하여 아동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고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주요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문장완성검사를 이용하여 아동의 인지적 특성을 파악하고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주요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통합예술치료(미술, 음악, 놀이)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과 삶에 대한 통제능력을 향상시켜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II. 본 문

1. 아동기 가정폭력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에 일어나는 폭력을 지칭하는 말로 폭력의 범위에는 부부폭력, 부모폭력, 자녀폭력, 형제 폭력을 통한 신체, 언어, 정서, 성적인 방임과 유기, 학대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유형 중 아동기의 가정폭력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심리 및 사회적 적응의 문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스스로가 나쁜 아이이기 때문에 폭력을 당한 것으로 인지할 수 있고, 자기비하감(self-blame), 소심함,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된다. 학대에 대해 내재화된 문제는 정상적인 사회화, 정보화 처리과정을 방해하여 인지적, 정서적인 발달을 방해하게 된다. 이렇게 아동기에 학대, 방임, 부모나 주변사람들에게 치욕스러운 모욕을 당하는 등의 경험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이 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란 장애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뒤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을 말한다. 충격적이거나 두려운 사건을 당하거나 목격하는 것으로 대부분 갑작스럽게 일어나며 심한 고통을 받고 일반적인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압도한다. 환자는 그런 외상이 지나갔어도 계속하여 그 당시의 충격적인 기억이 떠올라 활동이나 장소를 피하게 된다.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나 집중을 하지 못한다. 수면에도 문제가 생겨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거나 상실할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난다[2].

프레드릭(Fredrick)는 학대, 폭력, 방임이 아동의 인격형성기에 일어난 경우 아동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의 위험을 77%까지 증가시킨다. 또한 성인과는 다소 다른 특징으로 나타난다. 두려움, 자기회의, 불신, 위로할 수 없는 슬픔, 놀란 감정 상태를 놀이 속에서 뿐 아니라 또래집단이나 학교활동에 대한 회피, 과도한 몰입, 죄책감이나 무력감을 느끼기 쉽고 우울증, 자살생각, 마약과 알코올 이용 등과 같은 위협에 빠지게 만든다. 또한 학대경험과 특정 유전적 특성들이 상호작용하게 되면 학대를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공격적인 폭력을 보이는데 외부로 향해서 반항적, 도전적, 짜증을 내고 충동적, 공격적이 될 수

있고 내부를 향해서는 무기력, 우울, 자멸적으로 느끼면서 포기하고 고립 또는 부동(inactivity)의 태도로 위축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3].

폭력을 보고 자란 아동은 성인이 되면 약 25-30% 정도가 자기 자녀를 학대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는데, 특히 가정을 형성했을 때,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용했던 폭력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똑같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4]. 이러한 폭력은 다른 사회체제나 세대 간에 횡적으로, 종적으로 전이될 수도 있다.

2)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의 영향

아동기 가정폭력은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인 아동기 이후의 인생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인기에 외상을 경험한 것 보다 훨씬 심각하다[5]. 아동기에 오랫동안 반복되는 외상 사건들은 성인이 된 후 무력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왜곡된 인지 대처능력을 발달시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문제를 회피하고 부정적인 반응양식을 사용함으로써 낮은 삶의 질로 이어질 수 있다.

학대당한 아동은 인지적인 기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어 학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로부터의 아동학대경험이 학업성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연구[4][6]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자아존중감(Self-esteem)

가족 중에서도 부모는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자아존중감은 성공적인 행위결정에 중요한 요소로서 [7]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8], 부모들에 의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성적인 학대, 신체적·정서적 방임의 정도와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아동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부터 점점 낮아지다가 고등학교 시기에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아존중감 발달의 양상을 살펴보면 아동기의 자아존중감이 초등학교 3학년부턴 감소되기 시작하여 중학교 시기에는 급격하게 낮아지는

데, 이상적인 자아가 높아지면서 타인에게 비취지는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게 되고 따라서 자신에게 보다 비판적이고 엄격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정서적 불안정 상태를 경험하면서 적응과 발달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동안 억압되어 왔던 다양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돌출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도 하다[9].

3. 통합예술치료(Integrated Art Therapy)

통합예술치료는 ‘치료(cure)’에 ‘예술(art)’이라는 활동을 접목시켜 일반인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의 한 분야로 인간의 고통과 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상황이나 갈등 등을 예술경험을 통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문제의 증상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니다. 통합적 예술치료의 목적은 다양한 예술 치료적 접근방식과 매체를 차별적이고 특별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육체적-정신적-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총체성에 근거한 심리치료의 관점을 지니고 있다[10].

통합예술치료는 개인의 고유한 정신을 탐구하는 도구로 예술 작업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심리적·정서적·인지적 문제점이나 장애를 진단하고, 내면세계의 표출을 통해 증상을 제거 또는 경감되도록 유도하여 예방, 치료, 재활 각각의 자가 치료능력을 갖는 프로그램으로, 색과 형태를 이용한 미술과, 정서적 감정표현을 이용한 음악 그리고 본능적이거나 억압되어 있는 욕구 표출을 돕는 놀이를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치료활동은 그 자체로 여러 가지 문제 성향을 치료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나 전문가적인 안목에서 보다 의미 있는 프로그램의 선택적인 활용만이 더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예술치료는 기존의 언어 중심의 심리치료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클라이언트와 언어적 표현보다는 비언어적 표현이 더 많은 유아나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심리치료로 각광받고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실험집단 대상자는 전라북도내 I시에 소재한 I초등학교 4~6학년 4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제가 되는 대상을 가리기 위해 아동기 트라우마 검증을 실시하여 수치가 5~10 사이인 아동 20명을 선별하여 무선 배치하였다.

2.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는 통합예술치료가 가정폭력을 겪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2016년 5월에 1차 사전조사를 실행하고 2016년 6월에 2차에 걸친 참고자료 수집 및 사전조사를 실행하였다. 사전 자료수집 후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실험집단 대상자들에게 12회기 통합예술치료를 2016년 7월에서 8월까지 주 2회 화요일, 목요일 6시 30분~7시 30분까지 1회기 약 60분 동안 I기관 교실에서 진행하였다.

사후조사는 2016년 8월 29일에 실시되었고 평가 이후 교사에게 아동의 행동변화 및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양적연구로 사전·사후 동일하게 자아존중감에 대한 비모수 차이검증을 하였다. 질적연구로는 동적가족화, 문장완성검사, 프로그램 보고서, 피드백 일지, 연구자와 보조치료사의 관찰일지를 이용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의 내면적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3. 자료수집도구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Coopersmith와 Pope, McChale & Craighead 등의 연구에 기초하여 최보가와 진귀연[11]이 수정하여 연구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전영신[12]이 좀 더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체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6문항, 사회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9문항, 가정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9문항, 학교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영신[12]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9,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823이다.

4. 프로그램 내용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실시한 통합예술치료는 아동기 가정폭력에 관한 선행연구의 프로그램과 분노 및 공격성 감소를 위한 분노조절 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등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표는 <표 III-1>과 같이 정리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양적연구를 통해 비모수 분석인 맨휘트니 검정을 통해 동질성을 검증하고 윌콕슨의 순위합 검정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케이스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양적분석으로는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증하고 질적분석을 통해 양적분석을 보완하였다.

질적연구로는 아동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단계별로 치료적 요인을 찾아내고 내용분석을 하였다.

첫째, 아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타나는 예술 활동과 비언어적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자아존중감 향상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사전 동적가족화에서 나타난 그림과 사후 동적가족화에서 나타난 그림을 비교함으로써 자아존중감 향상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사전 문장완성검사와 사후 문장완성검사를 비교함으로써 자아존중감 향상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3-1. 통합예술치료 회기별 목표

Table 3-1. Goal of Integrated Art Therapy Session

단계	회기	목표	프로그램		내용
탐색 단계	1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정서를 파악하며, 집단원들과 라포를 형성한다.	미술	이름, 꿈, 상징 꾸미기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2		음악	내마음속 풍금	감정연주
	3		놀이	장점을 팔아요	장점경매
인식 단계	4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개성을 존중하여 집단원과 소통하며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자기이해력을 증진시킨다.	미술	감정화분 만들기	색깔소금
	5		놀이	함께라서 좋아	신문지놀이
	6		음악	'shut up'	가사개사하기
수용 단계	7	자신의 정서를 수용하고 문제해결의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여 감정교환, 지지, 격려를 통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미술	우리는 상담사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8		놀이	표현하는 것이 아름답다	풍선 터뜨리기
	9		미술	소중한 나	석고붕대
긍정 강화	10	자신과 집단의 변화를 인식하고 긍정적인 이해와 확신을 통해 자신의 삶에 자신감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음악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주인공 인터뷰하기
	11		미술	추억 만들기	T셔츠 꾸미기
	12		놀이	고맙다 친구야	다과 및 선물교환

IV. 연구 결과

통합예술치료 실시 전과 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비모수검정인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 변화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실시 후 총체적 자아존중감($Z=-1.68, P < .05$)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예술치료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일반적 인식, 구체적 능력을 바라보는 인식,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총체적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자아존중감($Z=-1.23, P < .05$)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예술치료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긍정적 피드백이 또래 관계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정적 자아존중감($Z=-2.51, P < .05$)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예술치료를 통해 가족안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부모-자녀, 형제-자매간의 애착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적 자아존중감($Z=-2.53, P < .05$)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예술치료를 통해 상호작용이 증진되고 이해력이 향상됨으로써 교사와 교우관계, 학업과의 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적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통합예술치료는 <표 IV-1>과 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표 IV-1. 통합예술치료 회기별 목표

Table IV-1. Integrated Art Therapy Session

구분	하위영역	집단	사전	사후	N	음의 순위		N	양의 순위		Z
			M (SE)	M (SE)		평균 순위	순위 합		평균 순위	순위 합	

자아존중감	총체적	실험 집단	2.27 (.34)	3.25 (.27)	3	4.00	24.00	8	4.00	14.50	-1.68*
		통제 집단	2.07 (.51)	2.23 (.49)	4	3.63	14.50	4	5.38	21.00	-.27
	사회적	실험 집단	2.36 (.42)	3.29 (.30)	2	4.25	8.50	7	3.90	19.50	-1.23*
		통제 집단	2.05 (.23)	1.98 (.33)	4	3.00	12.00	5	3.60	18.00	-1.16
	가정적	실험 집단	2.00 (.47)	3.25 (.24)	2	3.67	11.00	5	5.00	10.00	-2.51*
		통제 집단	2.13 (.43)	2.08 (.30)	3	3.75	7.50	4	3.25	6.50	-.26
	학교적	실험 집단	2.26 (.38)	3.27 (.18)	3	4.33	26.00	5	4.50	13.50	-2.53*
		통제 집단	2.15 (.28)	2.09 (.35)	4	3.63	14.50	3	4.10	20.50	-.35

*P <.05

2. 질적 분석

위와 같은 양적분석으로는 자아존중감 향상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때문에 질적분석으로 변화의 구체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치료회기별 내용과 참여아동의 관찰기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는 치료에 참여했던 선생님들의 관찰일지와 프로그램 일지, 피드백일지 등 관찰기록물을 사용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총체적 자아존중감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의 모든 부분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다. 탐색단계에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었던 아동이 통합예술치료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부정적 감정을 적극적으로 풀어내면서 다른 아동들에 비해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의미있는 변화를 보인 아동은 A, C, E, H이다.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아동의 경우 첫 시간부터 웃음이 없고 작은 목소리로 반응하며, 자신을 표현하는데 소극적이고 때때로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2주차에도 계속되었다. 동적가족화에서 사전검사는 자신의 모습을 검정색을 많이 사용하고 팔을 가늘게 그린 뒤 감춘 것으로 보아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표

현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은 통합예술치료에 계속 참여하면서 표정이 밝아지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신문지를 신나게 찢고 구기고 던지고 발로 밟기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큰소리로 이야기 하였다. 석고깍스가 자신을 감싸주는 것 같아 따뜻하다고 표현하였으며, 장애를 가진 친구에게 편견을 갖고 놀렸던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장애가 없는 자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며 가족 안에서 상처받았던 마음을 치유해 나갔다. 또한, 표현이 서툴던 아동이 활동 후 피드백을 하면서 의견을 이야기 하고 감정에 솔직해 졌으며, 웃음이 많아지고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등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말끝을 흐리지 않으며 감정표현이 증가하였다.

동적가족화의 사후검사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노랑과 파랑색, 녹색을 사용하고 밝게 웃는 모습을 그렸다. 이는 자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총체적 자아존중감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C아동의 경우 1주차에는 뛰어다니고 연필을 굴리며 도화지를 집어던지면서 과도한 행동을 하였다. 산만한 모습은 초기에 계속 되었다. ‘상징 꾸미기’에서는 연필을 정신없이 그어댔고 감정연주를 할 때 악기를 마구 두들기며 다른 친구를 방해하였고 피드백을 하는 동안에는 딴 짓을 하였다. 동적가족화의 사전검사에서는 조손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그려 넣음으로써 가족의 단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가족에 대한 결핍된 애정이 드러나 있다. 이런 사실로 판단할 때, 아동은 탐색단계에서는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아가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은 통합예술치료에 계속 참여하면서 산만한 행동이 줄어들고 꼼꼼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종료 후 청소까지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석고붕대’ 시간에는 화가나고 그늘진 자신의 상처가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며 열심히 공부하면 부모님이 돌아오실 거라며 희망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다. 자아가 안정되어 감을 알 수 있다.

11회기에는 T셔츠에 “나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겁이 나지만 잘 할 수 있다”며 ‘I Can do it’ 이라고 쓰고 거꾸로 나온 B의 티셔츠를 보면서 광고도 거꾸로 쓴 게 많으며 B를 격려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감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어 통합예술치

료는 C아동의 총체적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보인다.

E아동은 동적가족화에서 혼자서 게임하는 뒷모습을 그렸다. 탐색단계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싫어하였고 공상을 즐기며 때때로 무반응을 보였다. '이름꾸미기'에서 자신의 이름이 싫다며 거부하였고, 자신은 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자주하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장난을 쳤다. 악기를 가지고 감정을 표현할 때 소리가 좋다고 하프를 골랐으나 연주를 할 때에는 연주하지 않았다. 총체적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식단계부터는 다소 여유가 있고 밝은 모습을 보이면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해 갔다. 늘 혼자 집에 있다며 가족에 대한 이야기 하여 아동의 심리적 문제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놀이를 통해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렸다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였다.

긍정강화 단계에서는 자신은 눈과 입이 작아서 맘에 들지 않았는데 조금 크게 그리니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앞으로 멋진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외모 콤플렉스에서 벗어났으며, 이름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자아개념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동적가족화의 사후검사에서는 가족이 TV를 함께 보고 있는 모습을 그렸고 자신은 밝은 노랑 상의에 파랑 하의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이는 자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총체적 자아존중감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장완성검사에서도 나의 좋은 점과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는 '싸움을 잘 한다'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사후검사는 '권투를 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자신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과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는 '얼굴'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사후검사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신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H아동의 경우 걱정과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는 '키가 작은 것'이라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후검사는 '별로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때때로와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는 '짜증난다'고 부정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사후검사는 '즐겁다'고 명시하

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통합예술치료는 아동들의 총체적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가설 1-1의 통합예술치료는 가정폭력을 겪은 아동의 총체적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력을 높여준다.

2) 사회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또래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근거한다. 탐색단계에서 집단원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느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대화하는 것을 꺼리며 회피 반응을 보였던 아동이 통합예술치료를 통해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이어가고 서먹함이 감소하면서 다른 아동들에 비해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촉진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 아동은 B, C, F, G, J이다.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아동의 경우 첫 시간부터 집단원들에게 명령을 하며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고 상호작용의 질이 낮았다. 이름, 상징 꾸미기를 할 때 여러 번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내면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드러냈다. 또한 피드백을 할 때 다른 아이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딴 짓을 하면서 부정적이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우리는 상담사' 시간에 아빠가 엄마와 자신을 버릴까봐 걱정된다는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의 격려와 지지에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던 아동이 눈을 마주쳤다. 다른 친구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공감을 하고 미소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G아동은 첫 시간에 정서적 표현이 거의 없고 낮을 가렸다. 미소가 없었고 눈을 이리저리 굴리는 것으로 보아 불안감이 보였으며 잘 토라졌다. 동적가족화의 사전검사에서는 아빠의 얼굴을 그리지 않고 형체를 검정색으로 칠하였으며 엄마의 얼굴 역시 그리지 않은 채 빨간 색과 검정색을 사용하여 낙서하듯이 그렸다. 또한 자신을 현저하게 적게 그려 열등감, 무능력감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아동은 통합예술치료를 하면서 불안한 모습이 사라졌고 낮을 가리지 않으면서 상호작용의 질이 높아졌다. '색깔소금' 작업을 하면서 하얀색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해 간다며 여러 가지 색으로 표현하였고 재미있으며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문지 찢기' 놀이에서 가로로 길게 찢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하였고,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는 것 같다고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또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다른 집단원의 어깨를 토닥거리 주

며 때때로 미소와 웃음을 보이며 상호작용이 증가하였다. 잘 토라지던 아동이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을 풀어내고 공감하면서 다른 집단원들과 사이가 좋아졌고 적응력이 향상되었다. 동적가족화의 사후검사에서는 엄마를 노란색과 주황색을 사용하여 자신과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J아동은 동적가족화의 사전검사서 엄마, 아빠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렸고 아빠에 비해 엄마의 모습을 더 크게 그렸다. 엄마의 모습에서 콧구멍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엄마에 대한 분노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며, 또한 목젓이 보이도록 그렸는데 이것은 소리를 지르는 엄마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자아가 약해 보였다. 그림을 그릴 때 그리다 지우며 다시 그리기를 반복하여 다른 아이들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렸다. 악기는 오카리나를 선택했으나 I가 토라져 있자 양보하고 자신은 남아있는 트라이앵글을 선택하였다. 감정화분 만들기에서는 파스텔을 노란색을 선택하여 갖고 있었으나 다른 집단원이 노란색 필요하다고 하니 양보를 하였다. 신문지 찢기 놀이를 할 때에 얇고 딱딱한 간격을 맞추어 찢었고, 소극적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수용단계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상담사’ 시간에 어려서 옷을 벗기고 때렸던 엄마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화가 나며 소리를 지르는 엄마가 짜증난다며 감정을 드러냈다. 집단원들의 힘들었겠다는 피드백에 살짝 미소를 보였고 I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냈지만 ‘소중한 나’ 시간에는 석고봉대에 엄마의 웃는 모습을 그리면서 안정적인 애착관계의 변화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다음단계로의 안전한 치료과정의 기반이 다져졌음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서로 칭찬해 주는 모습이 가장 보기 좋았다고 하며 표현능력이 증가하였다.

문장완성검사서 B아동의 경우 친구와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는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여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함을 암시하고 있으나 사후검사는 ‘친구가 많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래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성 또래와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는 ‘놀린다’라고 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후검사는 ‘재미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래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외딴 곳에서 혼자 살게 된다면과 관

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는 ‘강아지와 살고 싶다’고 하였으나 사후검사는 ‘친구’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상이 동물에서 친구로 바뀐 것으로 보아 친구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C아동의 경우 친구와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에서는 ‘별로 없다’고 명시하였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래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과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에서는 ‘자신을 불쌍하게 본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괜찮은 사람으로 본다’고 인식하고 있다. 타인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자신감이 증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 또래와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에서는 ‘재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예쁘다’고 명시함으로써 또래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장점과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에서는 ‘잘 논다’고 하였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사이좋게 논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래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증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G아동의 경우 여성 또래와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에서는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였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서로 챙겨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성 또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성 또래와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에서는 ‘짜증난다’고 하였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답자답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성 또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통합예술치료는 아동들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가설 1-2의 통합예술치료는 가정폭력을 겪은 아동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력을 높여준다.

3) 가정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얼마만큼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다. 탐색단계에서 가족관계를 감추고 양가 감정과 반항적인 모습으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합리화했던 아동이 통합예술치료를 통해 가족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다른 아동들에 비해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수용하고 이해하며 의미있는 변화를 보인 아동은 B, C, F, G, J이다.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아동의 경우 첫 시간부터 암전하였지만 표정이 어두웠고 “나 이런 것 못하는데” 라며 작은 소리로 이야기 하였다. 동적가족화에서 사전검사는 누나를 제일 크게 그림으로써 심리적 압박감을 표현했고 아빠를 빨강, 검정색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두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은 인식단계부터 표정이 밝아지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신문지 위에서 오래버티기’를 할 때 아이들에게 대장역할을 하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석고봉대’ 시간에 김스를 한 불편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작업을 해 주다보니 몸이 불편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며 신체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불안하다고 했던 아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자신과 같이 상처받은 친구들이 있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며 요즘은 잠을 잘 자는 편이라고 하였다. 11회기에서는 활동하면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으며 앞으로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T셔츠에 Family를 썼다. 투사를 하던 아동이 긍정적인 말과 함께 미소가 증가하였다. 동적가족화의 사후검사에서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그렸다. 이는 가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I아동의 경우 동적가족화의 사전검사에서는 엄마의 모습에서 J아동과 마찬가지로 쿡구멍을 강조하였다. 엄마에 대한 분노가 표현되어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은 프로그램 활동시 탐색단계, 인식단계에서 혼자서 수행하는 과제만 집중하고 비협조적이었다. ‘이름, 상징꾸미기’를 할 때 노란색 반쪽이 풀을 다른 집단원이 쓰러하자 짜증을 내며 혼자서 독차지 하였고, ‘내 마음속의 풍금’ 시간에는 J가 오카리나를 선택하자 자기가 선택하려고 했으며 짜증을 냈다. J가 양보를 했으나 악기를 받은 뒤 연주에는 참여하지 않고 계속 토라져 있었다. ‘장점경매’를 할 때 한 집단원의 장점이 유머를 잘 한다고 나오자 입을 삐죽거리며 췌려보았다. ‘shut up’을 개사하라며 하트 모양의 종이를 나누어 주자 종이 찢어졌으며 바꾸어 달라고 하여 새 것으로 바꾸어 주었지만 작업은 하지 않고 J만 바라보며 무반응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수용단계부터는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풍선을 엉덩이로 눌러 터뜨리며 활짝 웃었고 자신의 팀이 이겨야 된다고 배구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9회기에서는 석고봉대를 통해 신체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며 사람들이 장애인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혼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또한 친구들의 마음에 상처가 많은 것을 이제야 알았으며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며 감사함을 표현했다. 서로 간에 인간으로 받아들여짐의 경험을 가지게 된 것이다. 동적가족화의 사후검사에서는 가족이 서로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가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D아동은 1주차에 쓸데없는 질문이 많았으며 큰 소리를 내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다른 집단원과 다투고 분위기를 흐리는 모습은 탐색단계와 인식단계에서 계속되었다. “이런 걸 왜 해요”라며 짜증을 냈고, 장점경매를 할 때 10,000원짜리를 5개 정도 만들라고 하였으나 100만원권 돈을 5장 만들자 집단원들의 불평이 나왔고 거친 말을 하면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신문지 찢기 놀이를 할 때에는 먼지가 난다고 소리를 질렀으며, ‘가사 개사하기’ 시간에도 다른 집단원을 참견하면서 돌아다녔다. 동적가족화의 사전검사에서는 가족이 각각 반대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옆모습을 그렸다.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이 낮고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수용단계부터는 자신의 감정을 점점 표현하고 자신감을 갖는 모습으로 변화해 갔다. 다른 집단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웃음을 짓고 맞장구를 쳤고, 동생보다 못하다는 소리에 늘 상처를 받았으며 자신의 마음에 반창고를 붙였으면 좋겠다고 표현을 하였다. 8회기에서는 동생을 주겠다고 풍선을 더 달라며 동생을 챙기는 변화를 보였다. 아동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면서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적가족화의 사후검사에서는 가족이 서로 마주보고 웃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문장완성검사서 I아동의 경우 걱정과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에서는 ‘죽는 것’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우리가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자신을 걱정하는 이기적인 모습에서 가족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에서는 ‘아빠’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가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좋아하는 대상이 한 사람에서 포괄적인 가족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외딴 곳에서 살 때와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에서는 ‘친구와 살고

싫다'고 하고 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가족'이라고 명시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애착이 긍정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J아동의 경우 내가 좀 어렸다면과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는 '엄마에게 맞았던 기억 때문에 싫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사후검사는 '엄마와 잘 지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 속의 엄마와도 긍정적 애착관계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는 '아빠'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사후검사는 '부모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엄마와의 관계형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는 '엄마'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사후검사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증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통합예술치료는 아동들의 가정적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가설 1-3의 통합예술치료는 가정폭력을 겪은 아동의 가정적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력을 높여준다.

4) 학교적 자아존중감

학교적 자아존중감은 학생 신분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다. 탐색단계에서 정서상태가 불안하고 학교에서의 적응력이 떨어진 아동이 통합예술치료를 통해 집단원들과의 응집력이 강화되고 다른 아동들에 비해 교우관계에 변화를 보이면서 적응력이 향상되는 의미있는 변화를 보인 아동은 B, D, H, F이다.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전검사에서 H아동은 집중하지 못하였다. 문장완성 검사에서는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 동적가족화에서는 아빠의 뒷모습을 크게 그리고 빨강으로 칠한 뒤 파랑을 덧칠했으며 또다시 검정색을 덧칠하였다.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나 있다. 또한 엄마를 측면으로 그린 것으로 보아 반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있고 자신과 엄마는 아래쪽에 조그맣게 그려 심한 위축감이 엿보이며 불안감, 두려움이 드러나 있다. 1회기에는 턱을 괴고 앉아 먼 곳을 응시하거나 다른 집단원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회기를 거듭할수록 집중력이 향상되었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변해 갔다. '내 마음 속 풍금' 시간에는 하피의 소리가 아름답다며 행복한 소리라고 표현하였다. 장점 경매에서 자신은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였고

I는 노래를 잘 한다며 다른 집단원의 장점을 칭찬하였다. 인식단계에서는 신문지를 북북 찢으니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하며 감정표현이 증가하였다. '우리는 상담사' 시간에 아빠가 화났을 때 엄마와 같이 맞는 적이 있다며 매번 맞기만 하는 엄마가 바보 같아서 싫다고 하였다. 또한 불면증이 있어 수면제를 먹은 적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집단원들 중 나도 아빠에게 맞은 적이 있다며 많이 힘들었지? 라며 공감을 해 주자 눈물을 보이다가 미소를 보였다.

긍정강화단계에서는 끝까지 잘 해본 것이 많지 않았는데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으며 친구들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자신과 같은 친구들이 있어 이해하고 친해 질 수 있었다며 프로그램을 너무 재미있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였다.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H아동은 공감과 타인에 대한 이해력이 증가 하였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장완성검사서 B아동의 경우 교사와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에서는 '자신에게 잘 해 준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교사가 달기기를 잘 한다'고 칭찬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D아동의 경우 교사와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는 답을 적지 않았으나 사후검사는 '관심이 많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교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F아동의 경우 공부와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는 '짜증난다'고 명시하였으나 사후검사에서는 '괜찮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와 관련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통합예술치료는 아동들의 학교적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가설 1-4의 통합예술치료는 가정폭력을 겪은 아동의 학교적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력을 높여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미술, 음악, 놀이로 구성된 통합예술치료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격려와 지지 속에서 부정적 정서 및 행동표현이 감소하였다. 가족, 또래관계에 대한 지각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따라서 통합예술치료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 또래관계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예술치료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방과 후 학교나 기관에서 아동들의 정신 사회적 발달을 고려한 일차적 예방 프로그램으로의 적용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양적연구로는 비모수 분석인 맨휘트니 검정을 통해 동질성을 검증하고 윌콕슨의 순위합 검정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질적연구로는 아동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단계별로 치료적 요인을 찾아내고 내용분석을 하였다.

양적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합예술치료 실시 전과 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비모수검정인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였다. <표 IV-1>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실험집단 아동의 자아존중감 비교 변화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실시 후 총체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아졌으며, 특히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좀 더 높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통합예술치료는 가정폭력을 겪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질적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합예술치료의 단계별 과정을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웃음이 없고 작은 목소리로 반응하며, 자신을 표현하는데 소극적이고 말끝을 흐려 산만함과 불안함으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아동이 미술을 통해 내면적 욕구를 파악하고 놀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음악을 통해 정서가 안정되면서 눈 마주침과 미소, 웃음이 증가하고 친밀감이 형성되어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인 것을 보아 통합예술치료는 가정폭력을 겪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동적가족화를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사전검사에서는 여러 번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엄마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콧구멍을 강조하고 누나를 크게 그림으로써 심리적 압박감을 표현하

며, 아빠를 빨강, 검정색으로 표현하여 두려움을 나타냈지만 사후검사에서는 노랑, 주황, 파랑, 녹색 등 밝은 색을 사용하여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 포옹하고 있는 모습, 산책하는 모습, 자신이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아 통합예술치료는 가정폭력을 겪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문장완성검사를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남성 또래와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는 '놀린다'라고 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재미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래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아 통합예술치료는 가정폭력을 겪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관련된 문장에서 사전검사는 '엄마'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사후검사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증진된 것으로 보아 통합예술치료는 가정폭력을 겪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통합예술치료는 향후 학교나 기관에서 문제 아동이나 부적응 아동, 요주의 아동을 특정하지 않고 그들의 정신사회적 발달을 위하여 따로 분리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면서, 집단상담을 통해 비용적인 부담을 줄이고 위화감을 피한다면 일차적 예방치료로서의 적용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취약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는 전영신[12], 오금조와 유영달[13], 김인숙[14], 정남주와 이영환[15], 최성희[16], 김효은[17], 정여주[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본 연구는 사회적·가정적 자아존중감이 기존의 연구보다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김미정[19]의 연구에 의하면 '공격·반항성' 감소를 위한 음악프로그램은 만2세에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는데, '우울이나 공격성'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통합예술치료는 정서의 표현이 다양하여 자신의 문제를 치유하고 경감시킬 수 있는 초등학교 4~6학년에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제언

본 연구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통합예술치료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적용하

는데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이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지방의 중소도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체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통합예술치료가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이러한 효과를 예술치료 전체의 효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통합예술치료만을 가지고 모든 가정폭력 경험 아동의 문제경감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가정폭력을 겪은 아동의 정신적·사회적 보건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통합예술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에서는 취약한 아동의 정신적·사회적 보건에 관여하는 전문인력, 사회복지사, 상담교사에게 통합예술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방과후 학교나 아동복지기관에서 아동의 정신사회적 발달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유용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12회기 단기 프로그램은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한 정서 및 행동영역의 확실한 변화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References

- [1] Collins, N. L. & Read, S. J.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pp.644-663. 1990.
- [2]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2018) <http://health.cdc.go.kr/health/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3810>
- [3] J.h. Kim, J.Y. Hu, T.O. Kim,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eoul: Sigmappress. 2009.
- [4] H.T. Lee, The effects of adolescent's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school grades. *The Korean Educational Forum*. Vol.11 No.1. pp 25-52. 2012.
- [5] K.H. Lee, E.H. Ha,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Traumatic Experience and Social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6 No1. pp 1-18. 2009.
- [6] C.B. Cho, N.H. Cho, The Effect of Exposed Experience of Adolescents to Family Violence on Committing School Violenc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Journal of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18 No.4. pp 75-102. 2011
- [7] J.S. Kim, M.J. Sim, J.S. Kwon, 2018."Factors affecting Health Promotion Behaviors among Adolesc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1, No.2, pp.57-65. 2018.
- [8] S.Y. Lim, S.Y. Kim, M.I. Choi. "The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1, No.2, pp.45-51, 2015.
- [9] J.E. Hong, Development of Expressive Arts Therapy Program focusing on Lifetime Rituals to improve Early Adolescents' Self-perception and Social skills. (doctoral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2014.
- [10] Y.C. Kim, Effects of integrated art therapy program on rehabilitation of mental disorders; Targeting patients with Schizophrenia. (doctoral dissertation) Deagu University, Daegu. 2012.
- [11] B.G. Choi, G.Y. Jeo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elf-Esteem Assessment for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32 No.1. pp 41-54. 1993.
- [12] Y.S. Jeon, "A Study on the Effect of Psychoanalytic Group Art Therapy on Self-Esteem of Disadvantaged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Daejeon University, Daejeon. 2015.
- [13] G.J. O, Y.D. You.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Children of Single Parent Family-focused on Self-Esteem, Sociability and Parent Image Perception by. *Journal of the Korea Family welfare Association*. Vol.15 No12. pp 83-100. 2010.
- [14] I.S. Kim.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Self-Esteem and Sociality of the Single Parent's Child.",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17 No.2., 205-227. 2010.
- [15] N.J. Jeong, Y.H. Lee,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Problematic Behaviors and Self-esteem of Child in Low-income Family."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Vol.1 No.2.

- pp 23-42. 2009.
- [16] S.H. Choi,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the self-esteem of children in single-parent families."Korean Journal of Arts Therapy. Vol.9 No.1. pp 193-217. 2009.
- [17] H.E. Kim,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Skills of GongBuBang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Vol.4 No.2. pp 175-197 2008.
- [18] Y.J. Chung,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 Korea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8 No.4. pp . 97-111. 2007.
- [19] M.J. Kim, A Development and Application Effects of Eoddler's Music Program based on Integrated Social and Emotional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2011.